

소설문학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돋구어주는 촉매인물의 형상적역할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백 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물을 그리는데서 힘을 넣어야 할 첫째가는 대상은 주인공이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272페이지)

문학형상에서 중심을 이루는것은 인물형상이며 인물형상에서 핵으로 되는것은 주인공의 성격창조이다. 주인공은 작품의 인물형상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사건의 중심에 서서 극을 끌고나가는 인물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자체의 개성적인 성격형상으로서 의의를 가지면서도 주인공의 성격형상에 이바지하여야 자기의 사명을 수행했다고 볼수 있다.

촉매인물도 주인공의 성격을 형상하는데서 자체의 뚜렷한 형상적몹을 가지는 인물이다. 물론 촉매인물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기본인물들사이의 련계를 맺어주며 그들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켜주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역할외에도 촉매인물은 그 성격적특징과 형상적위치의 특성으로부터 주인공의 성격을 돋구어주는데서 다른 부차적인물들에 비할수 없는 형상적역할을 하게 된다.

주인공의 성격을 돋구어준다는것은 주인공의 성격의 핵 다시말하여 사상정신적특징과 그 개성적표현이 뚜렷이 드러날수 있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소설문학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돋구어주는 촉매인물의 형상적역할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일정한 사건적계기를 지어주어 주인공의 성격이 드러날수 있는 객관적조건을 마련한다는것이다.

갈등을 사건발전의 기본추동력으로 하는 작품들에서 촉매인물은 갈등심화를 촉진시키는 인물로서 주인공과 상대인물을 대비 또는 대조시키는 방법으로 주인공의 성격을 돋구어주는데 이바지한다.

대조나 대비는 인물성격을 돋구어주는데서 흔히 리용되는 효과적인 성격형상수법의 하나이다.

인물들의 성격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립장과 태도의 차이로 하여 서로 구별된다.

특히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들사이에 설정되는 극적인 사건은 갈등인물들의 성격을 뚜렷하게 대조시키게 된다. 물론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건전개의 전과정에 성격의 대립과 그로 인한 대조현상은 시종일관 계속 일어나게 되지만 사건의 굴곡과 마루에 따라 성격대조의 차이가 달라진다.

촉매인물은 바로 사상적충돌이 강하게 표현되는 마루, 사건적계기를 마련해준다.

이때 그러한 계기점은 곧 갈등의 심화와 함께 상대인물과의 성격적대립을 통하여 주인공의 성격을 보다 돋구어줄수 있게 하는 계기로 된다.

실례로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에서 박정호기사의 역할을 들수 있다.

작품에서 박정호기사는 공부정인물들의 사상적대립이 표면에 나타날수 있는 사건적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있다.

박정호기사의 1호로대보수설계안은 곧 주인공과 부정인물들의 성격적모순과 대립이 드러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며 특히 50t기중기제작시험의 실패는 사상적대립이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공부정성격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촉매인물이 사건의 정황과 계기를 지어줌으로써 주인공의 성격을 돋구어주는 경우 촉매인물은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우선 촉매인물은 공부정인물들과 사건적으로 긴밀히 밀착된 인물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촉매인물이 공부정인물들과 생산실무적으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는 인물로 설정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갈등의 심화를 설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촉매인물은 경우에 따라 공부정인물들과 실무적으로 연관될수도 있고 연관이 없을수도 있다. 그것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법이 여러가지이며 반드시 사건과의 연관속에서만 갈등의 심화가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 촉매인물이 사건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인공과 실무적으로 연관된 인물로 설정되게 된다.

또한 공부정인물들과 실무적으로 연결될뿐아니라 사건의 주요고리인 생산실무적인 문제를 인간문제로 전환될수 있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이다.

이처럼 촉매인물이 사건적계기를 마련하는 경우 촉매인물은 기본사건에 대한 판조적 인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건에 참가하여 사건전개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소설문학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돋구어주는 촉매인물의 형상적역할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촉매인물자신의 성격과의 대비속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촉매인물이 이러한 형상적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전제는 촉매인물의 성격적특성과 관련된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크게 긍정인물집단과 부정인물집단으로 나뉘어진다.

매 인물들은 개성화된 자체의 성격들을 가지고있으며 고유한 성격론리에 따라 움직이면서 작품의 종자해명에 이바지한다.

촉매인물은 성격적특징으로부터 형상적위치에서 공부정인물들과 구별되는 인물이다.

촉매인물의 성격적특징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수 있는데 기본은 공부정인물들과 직접적인 대치상태에 놓이지 않는것이다.

이것은 촉매인물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인물이라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촉매인물의 주도적지향은 명백히 긍정 혹은 부정적특성을 띠게 되지만 전형적인 긍정인물이나 부정인물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만일 촉매인물의 성격을 전형적인 긍정인물이나 부정인물로 설정한다면 촉매인물은 갈등의 한 대상으로 되며 결국 촉매인물의 형상적위치가 주인공이나 상대인물들의 위치로 되게 된다.

그러나 촉매인물은 결코 중간인물이 아니며 자기의 사상적지향을 뚜렷이 가지고 독자적인 성격변화를 일으키는 인물이다.

촉매인물의 이러한 성격적특징은 곧 공부정인물들의 성격과 대비관계를 이루며 그로

부터 주인공의 성격을 돋구어주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실례로 중편소설 《불바람》에서 서금단의 역할을 들수 있다.

서금단은 창조와 혁신에 대한 갈망과 불같은 정열을 지닌 처녀이지만 속도전의 불길 이 나래치는 전투장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무뎡하게 사무실안에서만 맴돈다. 이때 서금단의 성격은 주인공이나 그의 갈등대상인 직장장과도 철저히 구별된다. 한마디로 서금단은 긍정적인 지향이 우세하지만 행동이 따라서지 못하는 인물로 특징지어진다. 서금단의 이러한 성격적특징은 주인공과의 대비를 이루면서 주인공의 성격을 돋구어주는데 이바지되고있다.

서금단은 처음에 직장장의 일군다운 품격과 호방한 성격에 이끌려 그의 《서기》로 일하면서 자신의 창조적능력을 본의아니게 억제하는 인물이였다. 그러던 그가 연공작업반 세 포비서를 알게 되면서 성격에서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서금단은 주인공과의 대비속에서 직장장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며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현실을 외면하고 낡은 사업방법에만 매달리는 직장장의 성격을 부정하면서 마침내 창조의 불길속에 뛰여든다.

서금단의 초기성격과 그의 성격변화과정은 곧 직장장의 부정적성격을 강조해주는것과 동시에 주인공의 긍정적성격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하고있다.

촉매인물이 자신의 성격과의 대비속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돋구어주는 경우 촉매인물은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우선 촉매인물의 성격이 개성화되며 그 발전과정이 뚜렷이 그어진다는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인공의 성격형상과 주제해명에 이바지하는 제나름의 형상적몹을 가지고있지만 필요에 따라 그 성격이 완전히 개성화될수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촉매인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촉매인물은 사건적, 감정적연계를 맺어주고 갈등을 심화시키는데 이바지하지만 그 성격이 개성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례로 단편소설 《백일홍》에서 주인공 우혁의 아들 영호나 단편소설 《바다를 푸르게 하라》에서 웅이를 들수 있다.

그러나 촉매인물이 주인공의 성격을 자신과의 대비속에서 돋구어주는 경우에는 다르다. 이 경우 촉매인물의 성격은 개성적으로 뚜렷하게 형상되는데 이때의 촉매인물은 성격적측면에서 주인공과의 뚜렷한 대비를 이루면서 주인공의 성격을 돋구어주게 된다.

주인공은 그와 대조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상대인물과의 대조속에서뿐아니라 촉매인물과의 대비속에서 그 성격이 더욱 부각될수 있다.

또한 주인공과 촉매인물사이에 부차적주제가 설정된다는것이다.

촉매인물의 성격이 개성화되었을 때 주인공과 촉매인물사이의 성격적차이는 주인공과 상대인물사이에 설정되어있는 기본주제와 구별되는 부차적주제가 설정될수 있게 한다.

물론 단일주제를 요구하는 단편소설에서는 부차적주제의 해명과정이 어려운것으로 하여 촉매인물의 성격이 뚜렷이 개성화된 경우 주인공과 촉매인물사이의 인간문제—부차적주제가 인물관계를 통하여 암시되고 기본주제의 해명과 함께 해결되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장편소설인 경우에는 주인공과 촉매인물사이의 부차적주제가 전면에 제시되며 그 해명과정이 부차적줄거리를 이루면서 전개되게 된다.

부차적주제의 제시와 해명과정은 곧 주인공과 촉매인물사이의 인간관계의 설정과 그 발전과정으로 표현된다.

주인공과 촉매인물사이의 인간관계의 발전과정은 이야기의 부차적줄거리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촉매인물의 성격변화발전으로 된다.

소설문학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돋구어주는 촉매인물의 형상적역할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촉매인물의 시점을 통하여 주인공과 상대인물의 성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주인공의 성격을 돋구어준다는것이다.

소설작품에서 촉매인물은 작품의 전과정에 혹은 잠간 시점인물로 설정될수도 있고 전혀 시점을 가지지 않을수도 있다. 촉매인물의 시점은 주인공의 성격을 보다 부각시켜 보여줄수 있는 유리한 안목으로 된다.

시점인물은 객관적사건에 대한 분석평가의 권한과 사명을 지닌 인물이다. 따라서 시점인물의 고유한 사상감정과 세계관이 소설에 반영된 객관적사실에 대한 평가와 분석에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시점인물의 사상정신적높이가 작품의 주제사상해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특히 갈등이 설정된 작품에 시점인물이 형성된 경우 혁명적인것과 반동적인것, 진보적인것과 보수적인것 등에 대한 시점인물의 견해가 긍정을 가르는데서 중요한 기준으로 되는것만큼 주인공의 성격형상에서 시점인물의 성격규정문제가 중요하게 나서지 않을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촉매인물은 그 성격적특징으로부터 주인공의 성격을 상대인물과 옹계 대비하고 평가할수 있는 효과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다.

촉매인물의 시점을 통하여 주인공의 성격을 돋구어주는 경우 촉매인물은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우선 촉매인물은 성격적으로 긍정적면과 부정적면을 다 가지고있으면서도 주도적인 지향에서는 긍정적인 인물이라는것이다.

촉매인물은 초기성격이 긍정인물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인물이다.

촉매인물의 이러한 특성은 주관적인 안목이 조성될수 있는 폐단을 막고 긍정인물들을 동시에 대비분석할수 있게 한다.

실례로 중편소설 《교정의 룰리》에서 성혁의 역할을 분석해볼수 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대학교원으로 배치된 성혁은 교육자로서의 참된 자세와 생활관을 체득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 그러나 교육경험이 적은 그는 본의아니게 교정의 룰리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은 성혁의 주도적인 지향은 비록 긍정적이지만 사상정신적준비정도는 아직 미숙한 단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에게 시점을 주어 두 교육자의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주도록 하고있다.

작품에서 《나》(성혁)의 시점에 비쳐든 유춘과 서한평의 대조적인 성격적차이는 깊은 인상을 남긴다. 박사원생인 지성옥의 학위론문에 대한 서한평의 립장은 성옥으로 하여금 논문지도교원을 바꿀것을 결심하게 한다.

그러나 유춘은 성옥의 학위론문을 위하여 많은 정력을 쏟아붓고도 논문지도교원만은 절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훌륭한 인재를 키워낸 공로는 고스란히 서한평에게 돌려지게 된다. 서한평은

자기의 교육성과를 열정적으로 토로한다.

《〈사심과 욕심, 가식이 없는 교원의 열정과 량심이 학생들의 끝없는 탐구심과 결합되면 참으로 큰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지성옥학생의 논문을 지도하면서 그것을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체험하였습니다. 지성옥학생과 같은 제자들을 키워내는것은 우리 교원들의 의무인 동시에 당과 혁명앞에 지녀야 할 량심이고 도덕이며 교육자가 아니고서는 맞볼수 없는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란스럽게 박수를 쳤으나 나는 어금이를 짓물면서 속으로 부르짖었다.

〈서한평선생님! 선생님이 소리높이 웨치는 그 교육자의 헌신성과 량심이 정말 선생님 의것입니까? 남의 헌신성, 남의 량심으로 자기를 내세우면서도 어쩌면 그리도 당당합니까?〉》(중편소설 《교정의 룰리》중에서)

두 교원의 대조적인 교육자적모습은 객관적으로 각각 묘사되는데만 그친것이 아니라 한 시점인물에 의하여 예리하게 대비평가됨으로써 그 성격적특성이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두 인물들의 대치되는 교육자적인생관은 시점인물의 머리속에서 옳은것과 그른것, 진리와 허위, 인간성과 비인간성 등에 대한 예리하고 심도있는 분석을 거치여 정확하게 재평가되고있으며 그것은 현저한 차이를 이루는 긍정인물들의 성격적대조를 더욱 뚜렷이 해주고있다.

촉매인물인 성혁이 두 인물을 예리하게 대비관찰하고 교육자적량심과 헌신성에 대한 깊은 사색과 분석을 할수 있는것은 그자체가 긍정적인 지향세계와 사상정신적미숙성을 가진 성격의 소유자로 설정되었기때문이다.

또한 촉매인물이 긍정인물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대비분석할수 있는 형상적위치에 놓인다는것이다.

이것은 촉매인물이 긍정인물들과 함께 일하거나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두 갈등대상들을 대상할수 있는 인물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것을 말한다.

또한 지성이 높은 인물로 특징지어진다.

촉매인물이 시점인물로 설정되는 경우 촉매인물은 생활을 보고 반영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을 예리하게 식별하고 그에 대한 분석적인 해석을 하는 인물이므로 촉매인물의 지성은 곧 작품의 지성을 규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촉매인물에게 시점을 줄 때에는 그의 지성도를 높이는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촉매인물은 주요인물들의 성격을 돋구어주는데서 다른 부차적인물들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노는 인물이다.

이로부터 작가는 작품에 촉매인물이 필요한가 아닌가, 설정된다면 어떤 인물로 설정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 갈등을 촉진시키는 역할과 함께 주인공의 성격을 보다 더 돋구어주는 촉매인물의 역할을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작품을 이루는 때 인물들의 형상적역할을 잘 알고 소설창작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선군시대의 전형적인 인간들을 특색있고 개성있는 소설작품의 주인공들로 더 훌륭히 형상해나가야 할것이다.